

2학년 6반 한수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날기 좋은 봄날씨

제목 : 비누방울 놀이

오늘 낮에 지민이와 엄마랑
비누방울 놀이를 했다.

그것은 풍싸움할때 장난감 풍이
랑 비슷했다. 그리고 그것은 선
풍기 처럼 바람이 나와서 우리
가 입으로 불지 않아도 쉽게 비
누방울을 쏠수 있다.

또 쏘았을때 비누방울 크기는 대부분
분 체리만 하거나 야구공 크기지
만 어떤게는 우리 얼굴 만한 것
도있고 어른얼굴만한 데다가 거기
안에 체리 만한 비누방울도 들
어있었다. 그런데 그 비누방울이
단점이 있었다. 그건 바로 바
람이 세게 불때에는 큰걸 티프
리면 작은게 남아서 내얼굴
에 날라온다. 그리고 바람이
오른쪽으로 부는데 내가 오른쪽
에 서있으면 완전 비누방울폭
탄을 맞는다.

엄마, 나도 내 생일날 비누방울 사
줘!